2023시즌 KBO '별 중의 별' 페디

페디,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 부문 석권
문동주, 류현진 이후 17년 만 한화 신인상 수상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MVP NC 페디와 신인상 한화 문동주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시즌 KBO리그를 지배한 '특급 에이스' 에릭 페디(30·NC 다이노스)가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페디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쏠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MVP를 품었다.

프로야구 출입기자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 111표 중 102표(91.9%)를 쓸어 담았다. 한화 노시환이 6표를 얻어 MVP 투표 2위에 머물렀다.

페디는 트로피와 함께 MVP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선수의 MVP 수상은 타이론 우즈(OB 베어스·1998년), 다니엘 리오스(두산 베어스·2007년), 에릭 테임즈(NC·2015년), 더스틴 니퍼트(두산·2016년), 조쉬 린드블럼(두산·2019년), 멜 로하스 주니어(KT 위즈·2020년), 아리엘 미란다(두산·2021년)에 이어 역대 8번째다.

지난 2015년 테임즈의 수상으로 창단 첫 MVP를 배출했던 NC는 8년 만에 두 번째 MVP도 외국인 투수의 덕을 봤다.

2023시즌 KBO리그를 논할 때 페디를 빼놓기 어려울 만큼 찬란한 활약을 펼쳤다.

지난 겨울 NC와 손잡고 KBO리그에 입성한 페디는 별다른 적응 시간도 필요 없이 곧바로 '괴물' 같은 기량을 뽐냈다.

지난 4월까지 6경기(38이닝)에서 4승1패 평균자책점 0.47을 기록하며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다. 전반기에만 12승(2패)을 따내면서 평균자책점은 1.71로 억제했다.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제 역할을 한 페디는 30경기에서 180⅓이닝을 던지며 20승6패 평균자책점 2.00으로 시즌을 마쳤다.

그야말로 KBO리그 역사에 남을 활약이었다.

페디는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209개) 부문을 석권하며 투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KBO리그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일군 투수는 선동열(1986, 1989~1991년)과 류현진(2006년), 윤석민(2011년)에 이어 페디가 4번째다. 외국인 선수로는 첫 번째 기록이다.

20승과 200탈삼진을 동시에 남긴 것도 진기록이다. 단일 시즌 20승과 200탈삼진을 동시에 달성한 것은 1986년 해태 타이거즈 선동열(24승·214탈삼진) 이후 37년 만이다.

이 역시 외국인 투수로는 최초고, KBO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역대 5번째다.

이날 시상식 참석을 위해 전날 입국한 페디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KBO리그에 감사하다. 이 리그에 오지 않았다면 상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같은 팀에서 뛴 많은 선수들이 아니었다면 수상할 수 없었다. 우리는 형제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생애 한 번만 누릴 수 있는 신인상의 영예는 문동주(한화 이글스)에게 돌아갔다.

문동주는 프로야구 출입기자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 111표 중 85표(76.6%)를 얻었다.

문동주와 신인상을 놓고 경쟁한 KIA 타이거즈 윤영철(15표)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문동주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원을 품었다.

한화 출신(빙그레 포함)의 신인상 수상은 1987년 이정훈·2001년 김태균·2006년 류현진 이후 4번째이자 17년 만이다.

시상대에 오른 문동주는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건 트로피가 많이 무거운 것 같다. 이 트로피의 무게를 잘 견디겠다"며 "(한화 선수로는) 17년 만에 이 상을 받는 걸로 안다. 이 영광을 팬들께 돌리겠다"고 말했다.

내년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수상소감 밝히는 KIA 박찬호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SOL KBO 시상식에서 KIA 박찬호가 수비상(유격수)를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광주체고 사격 김도훈, 헝가리오픈 동메달

'헝가리오픈 10M 공기총 사격대회' 3위 쾌거

왼쪽부터 헝가리 Andrew Walker, 강원대 김강현, 광주체육고 김도훈.

광주체육고등학교 김도훈 학생이 지난 11월 17~1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헝가리오픈 10M 공기총 사격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에 따르면 김도훈은 주니어 사격 공기권총 개인전 본선에서 579점으로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 213.8점으로 1위 김강현(강원대), 2위 앤드류 워커(헝가리)에 이어 3위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김도훈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도 공기권총 10m 주니어 단체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육철수 광주체육고 교장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친 김도훈 학생의 이번 성적은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큰 자랑이며 한국사격의 명예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량을 더욱 키워 올림픽과 같은 큰 국제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전국대회서 '메달 9개 획득' 맹활약

이양재 '최우수 선수'·서호철 감독 '최우수 지도자상'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3 전국 실업 역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남자 일반부 61kg급에 출전한 김동민 선수는 인상 115kg, 용상 150kg, 합계 265kg를 들어 올려 금메달 3개를 획득했고, +109kg급에 출전한 이양재 선수는 인상 180kg, 용상 233kg, 합계 413kg를 들어 올려 금메달 3개를 차지했다.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이양재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도 수상했다.

여자 일반부 +87kg급에 출전한 임정희 선수는 인상 80kg, 용상 100kg, 합계 180kg를 들어 올려 동메달을 3개를 획득했다.

81kg급 강민우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아쉽게 기권했다.

서호철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호철 감독은 "역도실업팀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완도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손흥민, 애스턴 빌라전 3골 모두 오프사이드 판정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26일(현지시간) 애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세 골 모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손흥민은 이날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3라운드 애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 세 차례 상대 골망을 흔들었지만 모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토트넘은 지오바니 로셀로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2 역전패를 당했다.

토트넘은 첼시전과 울버햄튼전에 이어 3연패를 기록하며 5위에 머물게 됐다.